

경제 불황에도 교회는 성장 헌금은 증가

미국의 대형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헌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더십네트워크(Leadership Network)가 최근 발표한 "대형교회에 대한 경제적 예측"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교회의 74%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대형교회의 기준은 2천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이며 조사 교회 수는 729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불황이 닥친 2008년에도 대부분 대형교회들의 헌금은 감소하지 않았다.

텍사스에 위치한 달라스제일침례교회는 오히려 오는 3월 31일 부활 주일에 1억3천만 달러 규모의 새 성전에 임당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제일 큰 교회 건물이 된다. 이렇게 헌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70% 이상의

교회에서는 헌금이 18% 증가했고 각종 기부도 10% 이상 증가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워렌 버드 박사는 "대형교회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도전은 수평이동해 오는 성도가 아닌,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자들, 혹은 비신자들을 전도해서 성장하는 것"이라며 "나는 미국에 다양한 크기의 교회, 더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는 교회들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 10명 중 1명이 지난 주일에 대형교회의 예배에 참여했다. 즉, 대형교회와 수평이동만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대형교회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현재 1천6백개의 대형교회가 있으며 이 안에는 미국 인구의 절반을 웃도는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VCS, 사랑의 무료개안수술 캠프 개최 =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서비스(VCS) 미주서부가 23일 LA총영사관 주차장에서 화랑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제 2회 사랑의 무료개안수술캠프를 열고 무료 안검진을 실시했다. VCS가 실시한 이번 행사를 통해 77명의 한인이 무료 안검진 혜택을 받았다. 행사에 앞서 신영성 LA총영사, 서영성 VCS 고문, 사라 박 화랑 라이온스 회장, 닥터 리사 황, 강진웅 목사, 남가주교협 총무 양경선 목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슈

선교사 증가율, 최근 감소세

한국선교연구원 현황 보고
 사역 유형은 교회개혁과
 개척훈련이 60% 상회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최근 '2012년 한국선교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교사 파송은 한국교회 성장에 힘입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해외 파송 선교사 수는 총 19,798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425명이 늘었으며, 증가율은 2.19%였다. 전체 총인원 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늘었으나, 연 증가율에 있어서는 2008년 이후의 연 평균 증가율 2.41%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한국 선교사 파송 증가율은 곧 하락세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적으로 선교사의 52.9%가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북미가 9.4%, 유라시아 지역 9.2%, 아프리카가 7.3%로 나타났다. 기독교 국가에서 27.5%, 이슬람권에서 29.9%, 공산권에서 18.7%, 불교권에서 14.3%로 나타났다.

선교사들의 사역 유형은 교회개혁과 제자훈련의 비중이 61.3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교육분야(신학교육 포함)가 16.98%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선교사의 비중이 42.16%, 50대가 28.37%였다. 30대는 17.88%, 60대 이상은 7.19%, 20대는 4.4%로 조사됐다. <4면으로 이어짐>

1년 사이 헌금 30% 감소... 한국교회도 '불황' 맞았다

부교역자 구조조정

건물 경매에 넘어가기도

불황의 한파는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국민들의 씀씀이가 줄어든 가운데, 교회의 헌금 역시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 한 목회자는 "교회들이 대부분 재정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 교세 감소와 불황 등이 겹치며 헌금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귀띔했다.

이 목회자의 말대로 헌금 내역을 공개하는 교회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최근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의 추락 속에서 '개혁'을 위해 주보나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개하는 교회도 더러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형교회 역시 주보를 통해 매 주일 헌금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 교회가 공개한 헌금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주일예배에

서 걷은 헌금 총액은 약 2억6천만원에 달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29일 주일엔 약 2억9천만원이 걷혔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 헌금이 약 3천만원 가량 줄었다.

서울 시내 또 다른 중형교회에선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했다. 이 교회는 올해 2월 3일 주일예배를 통해 약 7천만원의 헌금을 모았는데, 1년 전인 지난해 2월 5일에는 약 1억원이었다. 약 3천만원 정도가 덜 걷힌 것으로, 1년 사이 무려 30% 가량의 헌금이 줄었다. 그런데 위 두 교회의 경우 특이했던 점은, 줄어든 헌금 중 상당액이 일명 '목적헌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일헌금과 십일조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교회 건물 매입과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헌금에서 변동의 폭이 컸다.

한 목회자는 "기독교 침체에 따른 교인수 감소로 전반적 헌금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건축 헌금 등 목적헌금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경기가 나빠져도 회사의 급여는 적어지지 않아 십일조 등 고정헌금은 잘 줄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물가는 올라 교인들은 그 만큼 목적헌금을 덜 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헌금이 줄자 교회들도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선교비나 구제비 등은 일종의 '신앙적 저항감'으로 인해 잘 손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이다. 담임목사의 사례비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부교역자들이 '긴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부교역자들의 사례비를 깎거나 그 숫자를 줄이고 있다. 한 부목사는 "교회의 수는 한정돼 있는 반면 목회자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 교회 입장에서 부교역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그러니 부교역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기업으로 치면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3면으로 이어짐>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 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 HAN	IRS \$735,661.94	\$15,566.00

 KC Choi, E.A.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나라정비 ASE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교역자 10% 할인해 드립니다.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감사한인교회

감사로 30년 꿈과 소망을 향하여!

우리 감사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기쁨이 있는 성숙 / Joyful Growth

3월10일 (일) 저녁 7시 30분 생명의찬송 (별첨보서 121) * 모든일정 개척 기념 7시 30분 / 새벽기도 5시 15분	3월11일 (월) 저녁 7시 30분 모본파신 그리스도 (별첨보서 25) 새벽 5시 15분 엘리아의 순종 (별첨보서 171-7)	3월12일 (화) 저녁 7시 30분 목표파신 그리스도 (별첨보서 314) 새벽 5시 15분 엘리아의 기도 (별첨보서 184-4)	3월13일 (수) 저녁 7시 30분 홍성화파신 그리스도 (별첨보서 419) 새벽 5시 15분 엘리아의 처유 (별첨보서 191-8)
--	--	---	--

강사: 이등원 목사
 프로필: 지구촌교회, 지구촌 미니스트리, 네트워크(GMN)대표, KOSTA 국제 이사장, (사)한국기독교선교단 이사장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 및 김영길 담임목사 목회 30주년 감사예배

● 일시: 2013년 3월17일(주일) ● 시간: 오후 3시 30분 ● 장소: 감사한인교회 본당

담임목사: 김영길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회

● 일시: 2013년 3월8일(금)
 ● 시간: 저녁 7시 30분
 ● 장소: 감사한인교회 본당

태너 박홍섭, 바리톤 권상욱, 스포라노 클라리 김, 메조소프라노 정현우, Bulbul Pop Singer Julio Park, Violist Christina Lee, 현대무용팀, 가락팀, CTS 합창단, 연합성가대

30년 동안 감사한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한인교회를 다녀 가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격려해주셨던 모든 분들을 감사함으로 초청합니다.

THANKSGIVING CHURCH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www.thanksgivingchurch.com | (714)521.0991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이 지난 22, 23일 마련한 '선교적 교회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인 목회자를 비롯한 선교사, 신학생 1백여명이 찰스 밴 엥겐 교수의 열띤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플러신학교 찰스 밴 엥겐 교수, 선교적 교회론을 말하다

동서선교연구개발원(East-West Center for Missions 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EWC, 원장 박기호 교수)이 지난 22, 23일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한인 목회자를 비롯 신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선교신학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선교적 교회(Missionary Church)'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 강사로는 멕시코 선교사이자 플러신학교 선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찰스 밴 엥겐(Charles E. Van Engen)박사가 나섰다. 선교의 성서적 기초에 대해 오랜 기간 강의해온 세계적인 석학, 찰스 밴 엥겐 교수는 서두에서 먼저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되짚었다. 이어 그는 선교적 교회론의 본질과 목적, 역할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명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를 위해 부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선교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엥겐 교수는 이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에서 시작된 교회와 선교는 결코 분리되어선 안된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존립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나이 및 세대 차이를 비롯한 경제·문화·교육 등 각종 '장벽'을 건너는 곳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교를 논함에 있어 더이상 '지리적' 장벽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선교는 더 이상 'A지역에서 B지역으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1세기에 들어 선교는 범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엥겐 교수는 '글로벌(Global) + 로컬(Local)'의 조어인 '글로컬(Glocal)' 개념을 언급, "한 지역 내에서 '교회에서 교회가 아닌 곳으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의 이동을 가리켜 선교라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믿는 이들이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선교지는 다름 아닌 비그리스도인, 무니만(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음 세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들을 말씀과 실천(행위)을 통해 키워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회복, 자기 자신과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 나아가 자연과의 회복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선교요, 선교적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

그는 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선교' 개념에 대해 혼돈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선교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일명 '선교사'들만의 전유물이거나 조직적인 구조를 갖춘 선교단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배 신학(Stomach Theology)'이란 용어를 연거푸 사용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한 열매'에 대해 강



교회와 선교는

원래 동전의 양면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

21세기 新선교도구

이민과 디아스포라

지리적 장벽 아닌

나이 세대 문화 교육

장벽 넘는 게 선교



조하기도 했다. "목사나 선교사들이 신학을 머리로는 알되 배(마음)로는 온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한계"라면서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머리뿐만이 아닌, 실제 삶으로 체화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선교적 교회의 양상(모습)에 대해 "교회의 비밀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대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더이상 머리로는 신앙하는 것이 아닌, 삶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엥겐 교수는 또 "선교적 교회론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회나 선교단체의) 조직이나 구조보다 사람의 마음이다. 과거 서구에서 팀을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한 나머지 본질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경향이 있다. 조직을 만들어 놓고 되려 그 권위를 가지고 싸우는 실수를 범했다"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구조보다 관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그는 덧붙였다.

엥겐 교수는 최근 주목해야 할 선교 동향에 대해 말하면서 이민을 통한 복음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동양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선교 역사가 있어 아시아에 디아스포라들의 앞으로의 약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여전히 많은 제3의 영역을 위한 전문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에 걸쳐 크리스천 인구가 15억인데, 주님이 어디로 부르시더라도 현지 기독교인들과 동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도 조언했다.

한편, 그는 선교적 교회의 구조에 대해 '모달리티(Modality)' 모델구조와 '소달리티(Sodalitaly)' 모델구조를 구분해 설명하면서 "건강한 선교 구조를 만들기 위해 모달리티에도 속하지 않고 소달리티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선교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모달리티란 교단적 입장에서 교세 확장을 위한 선교활동을 말하며, 소달리티란 선교단체에서 사회적 봉사활동이나 구제, 또는 직업을 통해 선교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엥겐 교수는 끝으로 "모달리티 사역자와 소달리티 사역자가 상호 전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역을 공유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종전 모달리티-소달리티간 분리와 분열을 넘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선교적 방법론을 배워나가고, 21세기 각 지역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역설하면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한편,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선교 훈련원 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은 매 분기마다 최신 선교 동향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선교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정한나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세이언, 제2회 세계대회 하와이서 개최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줄여서 세이언) 제2회 세계대회가 '오직 진리만 위하라'는 주제로 오는 3월 4일(월) 오후 6시부터 7일(목) 오후 4시까지 하와이에 위치한 임마누엘한인침례교회에서 열린다. 세이언

은 2011년 11월 서울 신길동 대림감리교회에서 1회 세계대회를 열고, 인 터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해 5월에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이 ABHE 정회원 이 되었습니다
Initial Accreditation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iruskapc@yahoo.com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지난 2월 15일, 플로리다주 올란드에서 열린 ABHE(T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66차 연차총회에서 본교는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간 학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산하 교회와 노회들,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학생들과 동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됨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칼빈주의 보수개혁 한인 신학교 중 처음으로 ABHE 정회원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학교와 교단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쾌거를 이룬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ABHE의 정회원이 된 것을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리더를 양육하는 성경적이고 진실한 신학교육의 장으로 크게 성장해 가도록 교수진과 이사회, 학교 모든 스태프들은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계속 전해질 아름다운 소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장 박헌성 박사 이사장 서종천 박사

ABHE란?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USDE)와 고등 교육 인가기관인 CHEA 산하기관으로 공인된 기독교 대학 인가협회입니다.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은?
교단 소속 또는 주정부 등록만 있는 학교 졸업생들과는 달리 ABHE 정회원 대학의 학생들은 미국내 우수한 기독교 대학, 대학원 및 기타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학위와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학비보조금(Title IV) 지원과 미국 대학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폭스뉴스, 기도의 의학적인 효과 조명해 눈길

과연 기도가 병이 낫도록 도와줄까?

과연 기도를 통해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애틀랜타 지역뉴스인 폭스 5 뉴스에서 지난 21일, 기도에 관해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폭스뉴스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기도요청 페이지에는 매일 위험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 대한 기도요청이 올라오고 많은 이들이 이를 기도해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도는 매우 개인적이고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과학적으로 꼬집어 말하기 어려우며, 이것이 작용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밝히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폭스뉴스에서 스카티사라이트에 위치한 어린이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그로스 목사를 인터뷰했다. 선생이 집중치료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아무 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족들을 통해 매일 매일 기도의 힘을 본다고 말했다.

“커다란 문제와 도전이 다가올 때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같다.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는 얼마 전 나무가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는 3살 소년, 트립 헬스테드 군 역시 많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헬스테드 군을 위한 페이스북 기도 페이지에는 25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들이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코멘트를 남겨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디지털 기도 체인’이 환자의 가족들이 혼자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로스 씨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서로 나누고 기도해 줄 때 세계는 작게 느껴진다. 이 세계는 점점 커지지만, 우리는 그 일원으로 돌봄의 커뮤니티 안에서는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때로 앞에 닥친 몇 분 혹은 몇 시간의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기도가 정말 다름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여전히 논쟁거

리다. 어떤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더 빠른 치료효과를 낸다고 밝힌 반면, 다른 조사에서는 기도가 개인의 건강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스 씨는 자신이 돌보는 환자 가족들의 75퍼센트 가량은 기도를 한다고 밝히면서 무엇인가 거룩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우리가 가장 힘들고 버려졌다고 느낄 때 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때로 많은 부모들이 지금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지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고군분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 어떤 일이라도 풀어 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미국인들 가운데 50-90퍼센트가 많은 꾸준히 기도한다고 한다.

신디 김 기자

미주성결대 ESL 프로그램 주정부 공식 인가

미주성결교회(총회장 김광렬 목사)의 교단신학기관인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목사)가 지난 1월 주정부인 캘리포니아의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으로부터 ESL 프로그램 등 현지 영어학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으로 공식 인가를 받았다.

이 대학은 지난해 2월 미연방 교육부의 기독교대학분야 학위인증기관인 ABHE(T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로부터 준회원자격을 취득하여 학생들이 정부 지원금과 각종 기관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후 또 한 번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의 신학과와 대학원의 3과정(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을 개설중인 미주성결대학교는 조만간 미국인 교수들을 중심으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 등 현지 영어학습 과정을 오픈할 예정이다.

대학은 현재 대학원의 모든 과정에 대해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미 전역과 한국, 그리고 여러 선교지에서도 수준 높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각종 장단기 영어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과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 1면에서 이어짐

현금의 감소는 ‘교회 파산’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한 교회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교회 건축을 진행했지만, 대출 이자와 건축 대금 지급에 시달리다 결국 건물을 경매에 넘기고 말았다. 이 교회 건물의 감정가는 80억원. 하지만 담보로 잡힌 빛과 가압류 금액은 100억원이 훌쩍 넘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2천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가 절정에 이르면서 교회를 비롯한 많은 종교시설들이 증축 또는 신축했지만 이후 이어진 불황 탓에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던 종교시설들이 다수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 부동산 관련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8년 180건 정도에 불과하던 종교시설 경매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해 약 3백 건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회다움’ 민걸 목사는 “기독교 쇠퇴에 따른 교인 수 감소, 그리고 실직자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현금액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사회, 경제적 이유 외에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충성도가 약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목사는 또 “사실 지금까지 상당수 교회들이 지나치게 믿음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현금을 사



서울 시내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특별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있다(상기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용해 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특히 건물을 짓는데 있어 낭비가 심했다. 평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도 저마다 건물을 지었고 또 크게 지었다. 앞으로는 헌금의 감소 추세 속에서 교회들도 점점 소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영 기자

팀 티보 선수, 반동성애 교회 연설 철회해

하나님 말씀 변치 않아 vs 납작 엎드려 논쟁 연루 안돼야

팀 티보 선수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회에서 강연하려다 취소한 일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뉴욕 제트의 쿼터백인 티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그동안 공공연히 자신의 신앙을 경기 중에도 일상 생활에서 표명해 왔다. 그러나 그가 반동성애적 입장을 갖고 있는 달라스제일침례교회에서 강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성애 지지자들은 “절대로 가지 마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 교회의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반동성애적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보수주의 목회자이며 이 교회 역시 이런 복회 방침

에 따라 반동성애적 입장이 강하다.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티보가 비기독교인들의 온갖 독설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당연히 이번에도 강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며칠 간의 논쟁 끝에 그는 참여를 철회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조건없는 사랑과 희망을 이 교회의 신실한 멤버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알게 된 몇가지 사실로 인해 하는 참석을 취소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을 보다 밝은 세상을 원하는

이들과 나누며 살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 제프리스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개인적이며 직업적인 이유로 지금 납작 엎드려 이 (동성애) 논쟁에 연루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리스 목사는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에 이뤄지는 일이란 것은 지난 2천년 이상 주류 기독교의 가르침이었다. 나는 이것이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가 변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초청 후원 음악회 내달 3일

내달 3일 홀러톤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씨 초청 후원 음악회가 열린다. 리빙스톤 CDC(회장 박정일)가 주최하

는 이 음악회는 무료 치과 진료소의 장비를 마련해 고비용의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음악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열리며 음악회가 끝난 이후에는 간식도 제공된다.

▶주소: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문의: (714) 248-950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에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미스바대성회 강사 박보영 목사는 누구



박보영 목사

박보영 목사는 중앙대의대를 나와 서울에서 피부·비뇨기와 병원을 운영하다가 30대 후반에 목회자가 됐다. 그는 소위 잘나가는 의사로 활동 중에 심장마비로 1년 동안 병마와 싸우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후 의사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재산 수습역원을 모두 가난한 이웃들

故 박용익 목사가 조부

잘 나가는 의사 출신

투병 끝에 예수 만난다

회심後 수십억 재산 기부

고아·노숙자들의 친구돼

유튜브 조회수 7만 이상

올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는 감리교 성자로 불리는 고 박용익 목사이고, 아버지는 부흥사인 박장원 목사다.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은 이번 미스바 대성회에서, 대형집회라고 해서 생색내는 집회를 열기보다, 남가주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겠다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를 최대한 간소화 해 일반적인 예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축사나 격려사 등은 제외된다.

진유철 목사는 “남가주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모두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돼 참여했으면 한다”며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위로하시는 성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회 연합과 대부흥을 위해 열리는 제 1회 미스바 대성회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동양선교교회(박형은 목사)에서 네 번에 걸쳐 열린다. 세부 일정은 ▷1일 오후 7시 30분 ▷2일 오전 5시 30분 ▷오후 7시 30분▷3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이번 대성회는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을 주축으로 남가주 각 교협 및 목사회에서 주최 및 협력으로 열린다.

에게 나눠주고,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 후 교회를 개척해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아 및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노숙자들을 도우며 살아왔다. 박 목사는 현재 전세계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및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의 집회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7만 이상의 조회수를

>> 기사 1면에서 이어짐

선교사 중 남자의 비율은 46.3%, 여자의 비율은 53.7%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한 선교사는 전체의 86.2%, 독신선교사는 13.8%로 나타났다. 평신도 선교사와 교역자 선교사 비율은 각각 29.6%와 70.4%로, 교역자 선교사가 현저히 많았다.

전임 선교사와 자비량 선교사의 비율은 각각 92.5%, 7.5%였다. 사역 연수의 경우, 4년 이상 8년 미만 이 28.2%, 4년 미만은 25.2%로 나타

났다. 개척 선교와 일반 선교는 각각 35%와 65%로 일반 선교의 비율이 높았다. ‘개척 선교’에 대한 정의는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해당 종족 집단 내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또 학력의 경우 대졸자 선교사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학위 취득자는 33.3%, 박사학위 취득자는 4.2%로 나타났다.

한국선교연구원은 지난 2011년 158개 단체, 2012년 167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 선교사에 대한 조작적 정의:

선교회 회원권(Membership), 타 문화권에서 복음화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며, 고정된 급여가 아닌 모금에 의존하는 재정 원칙, 본부(장기) 행정사역자를 인정하며, 개교회 직접 파송 독립 선교사를 제외하고, 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텐트메이커(bivocational missionary)를 포함해 선교사로 보았다.

비전케어서비스

제2차 사랑의 무료개안수술 캠프 열다

비전케어서비스(VCS) 미주서부(이사장 알렉스 장)가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총영사관 주차장에서 화랑라이온스 클럽과 함께 ‘제 2차 사랑의 무료개안수술 안검진 캠프’를 열었다.

시력이 이상이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무료로 안검사를 진행, 총 77명의 한인이 무료 안검진을 받았다. 선착순 진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정해진 시간에

및 개안수술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날 안검진에는 리사 황, 브라이언 송 두 명의 안과의사가 참여했으며, 남가주 간호사협회와 화랑라이온스클럽의 레오들이 자원봉사자로 함께했으며, 오대산 한의사의 건강관리 강의도 진행됐다.

한편, VCS 미주서부는 오는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과테말라

LA총영사관에 한인 1백여명 몰려

15명에 백내장 수술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 환자가 있을 정도로 많은 한인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검진결과 백내장 질환을 발견된 환자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우를 선정해 3~5월 사이에 코리아타운 내의 여러 명의 안과의사가 자원봉사로 수술에 참여하며 총 15여명의 환자들에게 사랑의 의술을 펼치게 된다.

VCS미주서부 고문인 서영석 마취과 의사는 “많은 환자들이 실명에서 벗어나 광명을 찾기를 바란다”며 “보험이 없어 간단한 안검진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무료 안검진

에서 무료 개안수술 아이캠프를 개최할 예정으로, 의료진과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VCS는 2002년 한국에서 시작한 국제실명구호단체로 빛을 보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인종, 종교, 국가를 초월해 인술을 펼치는 단체다. 현재 몽골,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25개국에서 실명 예방과 백내장 수술 등 무료개안수술을 펼쳐 10년 동안 120차례 무료 안과캠프를 통해 7만 명 외래진료, 1만 회의 수술을 진행했다.

▶문의: (213) 281-2617

세계기도일 예배 3월 2일 성광장로교회서

미주 70여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기도일 예배가 남가주 지역에서는 오는 3월 2일(토) 오전 10시 성광장로교회(이상훈 목사)에서 열린다.

올해는 세계기도일 126주년인 해로, 금년도 기도문은 프랑스에서 작성됐다.

세계기도일은 전세계 여성들이 매년 기도문을 작성한 국가의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 그들을 위해 헌금을 모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올해 모아지는 헌금은 프랑스 여성들 외에 북한선교, 기아 아동 및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동들, 미국 내 불우 여성들과 불우 아동, 청소년, 세계 결식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여러 선교단체들을 지원하게 된다.

헌금 외에도 세계기도일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여성들이 연합하는 대표적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도문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나눠 읽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최측은 이 기도문을 최대한 많은 교회 여성들이 참여해 읽도록 권하고 있다.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 회장 최미란 권사는 “기도회에 교회 여성들은 물론이요, 온 성도들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세계기도일의 유래와 예배

한편, 세계기도일은 다윈 제임스(미국장로교국내선교부의장)에 의해 1887년 시작됐다. 당시 미국으로 새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

서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날을 정한 것이 바로 세계기도일의 시작이다.

이 운동은 선교사들과 해외로 여행하는 여성들을 통하여 세계 각 국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1927년에는 ‘세계기도의 날’이라는 명칭이 확정되었다. 세계기도일예배는 해마다 특별한 주제로 드린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기도일 국제위원회 회의에서 주제와 예배문 작성을 선택한다.

일단 주제와 예배문 작성국이 정해지면 선정된 나라의 여성들이 세계기도일 국제위원회가 결정한 주제에 맞게 공동 예배문을 만든다. 예배 준비와 참여과정에서 여성들은 다른 언어와 문화가 가진 여성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성서 본문을 이해하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의 관심과 욕구가 무엇인지 들으며, 그들과 연대할 필요성을 깨닫고 국가를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한 예배 속의 만남을 통해 신앙이 넓고, 깊어지며 나아가 풍요한 기독교 신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22년 한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한국은 1930년 “예수님만 바라보며”, 1963년 “이기는 힘”, 1997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라는 주제로 기도문도 세 번이나 작성한 바 있다. 미주에서는 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전 미주 70여 지역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Advertisement fo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Retreat Center. Includes logo, title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and text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Features images of the campus and a dining table. Text describes the 35-acre facility and lists activities like conferences, seminars, and retreats. Contact info: Grace Lee,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웨스트LA 한인교회 한상원 목사

내달 17일 취임예배



한상원 목사

웨스트LA 한인교회 제5대 담임으로 초빙된 한상원 목사 취임예배가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 진행된다. 한상원 목사는 한국 온누리교회

수석부목사를 지내고 월간 두란노 <빛과소금> 편집대스크를 거쳐, 뉴욕·LA 두란노서원 대표를 역임했다. 미주에서의 목회 경력으로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비전교회와 여거스타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으로 시무한 바 있다. 현재 솔라그라티아 미니스트리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큐티세미나, 목회자일대일양육세미나, 아버지학교 등 각종 세미나 강사로 섬겨오고 있다.

▶주소: 3840 Grand View Blvd. Los Angeles, CA 90066 ▶전화: (310) 397-2741

하나님의 자비로 얻는 구원

시편 130:1-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악의 근성을 피로 이어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악취미를 삶에 어떤 낙으로 즐기면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담의 후예, 온 인류의 생리적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 잘난 멋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한 실패와 절망이며 감당할 수 없는 부담과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가 '나는 이것 밖에 안되었구나' 하고 엎어지기는 했었는데 일으켜 줄 자도 없고 스스로 털고 일어설 힘도 없을 때에 그 인생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잘 반성해 보노라면 '아! 내가 어리석었고 또 무능했고, 지나친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너무 허욕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자신의 신세를 망치고 엎어졌지만 스스로 떨치고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은 자신에게 더 이상 가능성을 기대할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럴 때 인간은 가장 솔직해져야 합니다.

1. 부모님이 나를 낳고 싶어서 낳은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심으로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왜 낳게 하신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종교 심리인데 흑인, 황인, 백인 차별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되어있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영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지극히 깊은 절망에, 몹시 다양한 상황에, 죽을 지경에 몰리게 되어서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유인원이라고 해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다윈이 별소리를 했지만 이제 21세기 과학은 그것도 헛소리였다고 취급하고 미국에서는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론이 나왔는데 이것은 곧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가장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에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허세 떨고 광내는 거 보고 원숭이 흉내내는 식으로 빛이라도 얻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웃이 낡기도 전에 빛이 숨통을 조여 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지나친 과시적 허세가 자기 인생에 엄청난 부담을 지게 했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숨통을 조르는 오라줄에 얽혀 매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어떤 물리적 사치품으로 단장하려 하지 말고 진리와 성령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아름답다 하시고 그 사람은 얼굴이 생기와 소망으로 넘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기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

는 노래인데 본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에서 깊은 데라고 하는 곳은 바다 밑바닥이 아니고 자기 인생이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시달리다 못해 죽을 지경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 통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 끓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비로 얻는 구원의 도리'를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몰랐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깊은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랐을 것이고 부르짖을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나 깊은 절망과 고통과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자기를 구원 해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야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엄청나게 두터운 장벽으로 가로 막아 놨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어져서 그물을 내렸더니 한 그물로 두배를 채워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만 그 사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계속 모시고 살면 수치 맞겠는데 불행하게도 나는 죄가 많은 인생이라 모시지 못할 것이라는 양심의 가책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참회가 베드로로 하여금 얼마나 비참한 회개로 통곡하게 했겠습니까!

2. 본문을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내 사정을 들어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날 건져 내시고 살려주시라고' 하고 싶은데 제일 크게 부담되는 장애물이 자기가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밤에 깊은 골방에서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 앞에서 피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감찰하신다고 하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값도 내가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 주신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 이름 의지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하시고 "너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 졌느니라. 그래서 너는 의로워졌다. 너로 내 아들, 딸을 삼으리라.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쥐서 너로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살게 하고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게 될 것이다"고 하셔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

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나를 감찰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희생양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책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고, 또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회개하고 긍휼을 호소하며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죄인 괴수들이 회개만 하고 신앙고백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셨느냐? 그 이유는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다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알게 믿어지게 회개케 하시고 그가 회개해서 그 엄청난 지옥 형벌의 죄와 저주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을 때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엄청난 빛을 진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주신 그 은혜가 황송무지해 너무나 감사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대속하시어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성령의 계시와 조령, 감동과 체험을 통하여 그 아들을 알아보고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고 성령이 회개 시키는 대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죄 없는 의인의 자격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바 아버지 할 수 있는 아들, 딸의 신분으로 하늘나라 호적의 생명책에 등록시켜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길을 지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할 것 못할 것 다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자녀의 구실을 다해야 합니다.

3. 6절에 "파숫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숫군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7-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 인자 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 하시리로다"고 했습니다. 자기문제도 이스라엘 전 국민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이라서 이토록 자기도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모습과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보여주면서 이스라엘도 이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믿음이 되어 절망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남은 뜻을 이루실 지체나 그릇이나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로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쓰임 받는 모습 보자는 것이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아직도 성령을 못 받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신령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는 메마른 심령들이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했습니다. 믿되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죽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어떤 울무와 재앙으로 인생을 망치려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자녀로 맞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말씀으로 생명길을 지시하시며 성령께서 하늘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가 함정을 파고 울무를 쳐놓았다 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함정에 빠질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편안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중심으로 소원할 때 넉넉히 섬기고 남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11시 50분		미국	기독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x#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uu.us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활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철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경연을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영예이 사랑교회, 믿음의 운수를 전하는 신교교회, 데이빗 백 변화시 그룹, 머뭇한 변화시 그룹, 가주 영로교회, Lahenco, Inc. 웨일리 자동차, 남가주 청년도, 도안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울타리선교회, 대통령 봉사상 수상



나주옥 목사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옥 목사)가 지난 25일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단체 해외발리지가 주최한 제2회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정한 자원봉사상이다. 봉사 시간에 따라 라이프타임·금·은·동상 등 4종류로 분류된다. 한편, 대통령 봉사상 위원회는 전국 80개 이상 기관과 2만8000여 파트너 단체를 통해 봉사상을 수여,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있다.

정원훈 한미은행 초대행장

미술전 수익금 2천불 쾌척



정원훈 초대행장

한미은행 정원훈 초대 행장이 지난해 12월 LA와 가든그로브 한미은행 지점에서 가졌던 미술전 수익금 일부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정 초대 행장은 오는 14일 정오 필그림루터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무료 점심식사' 행사를 위해 주회 측인 방주교회에 2190불을 전달했다. 이는 수익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한다.

한미은행 산하 봉사단체 '한미네이버' 소속 직원들이 이 행사를 위해 블런티어로 참여해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간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행사에 한미은행 직원 4-5명이 참여해 꾸준히 배식을 도왔다. 한미은행 측은 내달 행사에 직원들은 물론 정 초대 행장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는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밥 한 끼에 위안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제개혁대·신학대학원 ABHE 정회원 자격 획득

국제개혁대학교·대학원(IRUS)이 지난 15일(금),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ABHE 66차 연차총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이 학교에 따르면 2007년 ABHE 준회원을 획득했고, 이후 교수, 행정, 도서, 학생서비스, 재정 등 다방면에서 총력을 다해 준비함으로써 ABHE의 검증절차를 거쳤다.

ABHE는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USDE)와 고등교육 인가기관인 CHEA 산하 기관으로서 공인된 기

독교대학 인가협회다. 현재 200여개의 정회원 기독교대학 및 신학대학원이 속해 있다.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으로는 교단 소속 또는 주정부 등록만 있는 학교 졸업생들과는 달리 ABHE 정회원 대학의 학생들은 미국 내 우수한 기독교대학, 대학원 및 기타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경우 모든 학점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연방 정부의 학비보조금 지원 혜택과 미국 대학이 누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피릿 무브먼트 제3차 포럼 개최



뉴스피릿 무브먼트 제3차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용덕 목사

"Holy Life, Holy Family, Holy Nations"이란 핵심 표어를 내걸고 이 땅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뉴스피릿 무브먼트(New Spirit Movement, 줄여서 NSM, 상임대표 박용덕 목사)가 지난 21일 남가주 빛내리교회에서 제3차 포럼을 개최했다.

5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 상임대표 박용덕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영적으로 타락한 미국과 세계를 살릴 운동은 '거룩 운동'밖에 없다"면서 "그렇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싸움이라 해도 이 운동에 헌신의 힘을 쏟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포럼 1부 순서는 예배로, 2부는 주제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NSM

사무총장 이윤수 목사의 사회로 드러진 이날 예배는 민승기 목사(OC교협 부회장)의 기도, 민경엽 목사(OC교협 회장)의 설교, 광고는 지은영 목사(NSM총무), 축도는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증경회장)가 맡았다.

민경엽 목사는 설교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주제임에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며 목회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켰고 이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전했다.

이후 계속된 포럼에서는 '거룩성 회복을 위한 목회자들의 역할'이란 주제를 놓고 박용덕 목사가 발제했다. 박 목사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영적 화두는 다름 아닌 '거룩'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거룩이 목회의 기본이요, 목회의 핵심이며, 목회의 전부이

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목회자들에게 있어 거룩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룩에는 ▷공간적 개념의 거룩과 ▷시간적 개념의 거룩, 그리고 ▷실천적 개념의 거룩 ▷존재적 개념의 거룩, ▷인격적 개념의 거룩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거룩성 운동이 지속된다면 집중 훈련과 반복 교육, 그리고 이를 위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역 목회자들이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세헌 목사(예수교회 담임)의 인도로 '이번 목회의 비전 쉐어링과 목회자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토론과 윤덕근 목사(얼바인브릿지교회 담임)의 인도로 '이번 목회의 참된 부흥과 부흥을 위한 돌파구'에 대한 자유토론 순서를 가졌다. 목회자들은 이 자리에서 각자가 지닌 비전과 고민, 그리고 목회의 바른 방향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이 땅의 거룩성 회복과 확산을 위한 방향'을 주제로 참석자 전원 ▷이 땅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NSM 운동의 확산을 위해 ▷교회의 부흥과 축복된 목회 사역을 위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영찬 목사(OC 한인목사회수석부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NSM 주최 측은 앞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 이 같은 포럼을 통해 거룩성 운동을 확산시킬 방침을 표명하고 이 운동에 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소셜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를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정기교육 세미나 열려



18일 소망소사이터가 마련한 정기교육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해온 비영리단체 소망소사이터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LA에서는 처음으로 18일(월) 오전 10시 나성동산교회에서 정기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경철 사무총장의 사회로 2시간 30분 가량 이어진 이번 세미나에서 주강사로 나선 주혜미 교수(교육학 박사)가 '치매예방 건강교육',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첫 강연을 펼쳤고, 이어 박혜수 소망소사이터 교육부장이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이날 정기교육세미나에서는 유분자 이사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삶과 죽음을 보다 아름답게 완성하는 일에 힘쓰는 소망소사이터의 소명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한인사회에서 아름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강연 이어져

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샌디에고에서 세미나 관련 소식을 들은 김희동 목사가 '웰빙 웰에 이징 웰다빙(Well-Being, Well-Aging, Well-Dying)'을 위한 준비교육에 뜻을 함께 하고자 관심을 갖고 참석했듯이, 미주신문학회장을 역임했던 최석봉 시인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에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한편, 소망소사이터가 주관하는 정기교육세미나는 나성동산교회에서 매월 셋째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내달에는 주혜미 교수 강사로 나서 치매예방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토마스 멩 기자



스마트 월드

건강용품 전문점

타주 무료배송!
2년 무이자 할부 판매!
엘에이 총판 딜러십 획득

www.Gosmartworld.com

후지타만에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FUJITA
2013 최신형
KN9003

★★★★★

5 year WARRANTY

전문 안마사에 안마를 원하십니까?
후지타 전신 마사지체어를 만나세요



NEW

세계 유일한 전신 마사지체어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허리. 어깨. 교정 시스템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환상적 어깨 3 회 10초씩, 허리 3회 60초씩
전문 타이 스트레칭!
허리디스크, 자궁 신경통 교정에 최고!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 단계 강약 조절을 선택할수 있음!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에어 전신 스윙 안마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
성능과 기능은 세계 최고!
가격은 타사 제품의 반값!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엄청 시원해요!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으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무료 체험 환영합니다!!
바른 선택은 구입후 후회나 속상함이 없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비교하세요 성능과 기능을 - 비교하세요 품질과 가격을		
Fujita KN9003 \$4,200 Fujita SMK9100 \$4,300	비교 VS	Inada-Sogno \$8,000 Panasonic MA-70 \$7,000
Fujita 을 선택한 순간 최고의 가치와 만족을 누릴것입니다		



Rodeo 자동승마



Rodeo Core Exerciser



손안마기



Vitality - 지방분해 운동기구

세계 유일한 플옵션 전문 전신 안마용!
베스트 셀러!

★★★★★



FUJITA
Model: KN9003
Retail: \$6,499

SALE

35% OFF

+Tax
Sale: \$4,200



FUJITA
Model: SMK9100
Retail: \$6,999

SALE

38% OFF

+Tax
Sale: \$4,300

노약자 및 재활치료용

일반 DAILY 마사지용



FUJITA
Model: SMK8800
Retail: \$4,600

SALE

60% OFF

+Tax
Sale: \$1,800



Osaki
Model: 7200H
Retail: \$4,600

SALE

21% OFF

+Tax
Sale: \$3,795

스포츠 전문 마사지용



안전 운전이 필수품!



음이온 핸들커버



발 마사지 지압



에코노 하이



EZ-BIKE



미백 / 어깨 통증 치료기



STEP & STEP



Ninja 어깨 목원마기



스윙 하반신 흔들이



Heaven Fresh 알카리 이온수



발진동 마사지



욕각수



부엌 / 화장실용



Figure Trimmer



음이온 공기 청정기



Solar-수지침 손마사지



거실용



Heaven Fresh



Room



차량용

박스데반 선교사의 기도 편지

“예배자로 사는 기쁨”



2000년 터키로 처음 단기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기 되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이라는 찬양을 혼자 부르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기로 헌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동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곳이 가장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무명의 선교사로 산다고 해도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제가 평생을 중동선교사로 살면서 하고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곳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타락한 땅이라도 의인이 있으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달라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2005년 정식 파송을 받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선교사님들께서 추방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동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지를 떠나야 하거나 선교지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평생을 중동선교에 헌신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선교를 생각할 때 지혜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선교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현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입니다. 현지 무슬림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왔고 무엇을 하고 있니?”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이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지난 역사에 기독교인은 힘과 권력으로 중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루고자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군사로 수많은 무슬림을 죽이고 아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힘으로 사람을 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무슬림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한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라는 복종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는 경영이 전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아시는 교수님께서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기업을 가치를 파는 것이고 가치를 또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인 아빠를 두어서 행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선교에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반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생하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서로 기도해 주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전입니다. 저를 좀더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또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기독교신학교(현재 백석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신학교라는 동아리에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됐고 군을 제대한 이후에는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YWAM)에서 예수제자훈련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이수한 이후에 선교사로 나가고자 간사에 위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없어서 과자 하나 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먹으며 지낸 적도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는 화장품을 없어서 피부도 엉망이 되고, 아이들 기저귀가 떨어가 가면 내 마음도 한 없이 무거움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살게시다는 것을 알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재정은 늘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면서 사셨고 또한 고난과 죽음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 같았으나 사단의 왕국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가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사로 있으면서 배운 것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하지도 않았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DTS 간사로 보내면서 저는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노래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저는 예배 중에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 오기는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19편으로 이어짐>

무명의 선교사로 산다 해도 단 하나

예배자로 사는 기쁨 포기할 수 없어

BAM을 통한 선교, 그리고 후배 양성

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가지 있다고 느낀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배운 가치는 사랑입니다.

저는 중동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여성과 아이들이 사랑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슬람이 이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가치 있다고 그러기에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패밀리카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함께 놀 수 있는 곳 놀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윤은 중동에서 전적으로 또는 사회 문제로 인하여 과부나 고아가 된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사의 부모 밑에서 고생하지만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을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보았고 나도 선교사로 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슬람은 세계를 이슬람화 하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전략을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출산을 하여 유럽을 이슬람화 하고 있고 또한 미국이나 한국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쁨이 되고 싶고 또 한가지는 후배 선교사들에게도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비전이 있다면 중동에서 저의 후배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BAM을 통한 선교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또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BAM을 통한 선교하는 것, 그리고 후배를 키우는 것은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하고 싶은

간사로 있으면서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예수제자훈련학교)와 SOFM(School of Frontier Mission, 최전방선교사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전도단 간사로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월급이 없습니다. 15년 이상을 여기서 보냈지만 한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가 후원해 주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돈이 없어 버스를 타지 못하고 걸어야 했고 먹을게

Advertisement for Indian Aloe Vera products, including Aloe Vera Juice and Aloe Vera Gel, with contact information: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World for Jesus Mission University 예수선교 종합대학

본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BPPE)으로부터 정식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CAPPS에 가입된 학교입니다.

문의 연락처: World for Jesus Mission Center

Tel: 213.389.0258 / Cell: 213.700.6100

담당책임자: David K. Yim(임순중 목사) 선교학박사(D. Miss), 목회학 박사(D. Min), 신학박사(D.T.S.)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Table with 5 columns: 학위과정, 학과/전공, 졸업이수학점, 연한, 지원자격. Rows include B.A 과정, M.Div 과정, D. Min 과정, D. Div 과정, D.T.S., Ph.D 과정, and Doctor of Christian Counseling/Education.

비학위 과정-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연구과정으로 학력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증(Diploma)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1통(본교 소정양식)
2) 담임목사 추천서 1통(본교 소정양식)
3) 명함판 사진(6개월 이내 촬영) 3매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목회신학석사 과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요망)
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6) 개인 신앙고백서 1통 및 이력서

“베들레헴서 예수 찬양한다면 감격할 것”

PCMG 미주 한인 성가단원 모집 중



전현미 지휘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올해 12월에 개최될 (2013 베들레헴 크리스마스콘서트)를 위해 PCMG(태평양연안선교회)가 '에버레스팅 콰이어(Everlasting Choir)' 성가단원과 순례단원을 전격 모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안에 있는 성지 베들레헴에서는 해마다 12월 중순 점등식을 시작으로, (베들레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과 순례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한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15개국에서 찬양단이 참가해 성탄 찬양 실황을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한 바 있다.

이번 콘서트와 관련, 미주한인 방문 준비위원장 이백호 목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찬양축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적 사실임을 알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다지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실히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생애 단 한 번이라도 성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싶다는 신앙적 열망을 가진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2013 베들레헴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순례의 길에 참여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새로운 찬양단 '에버레스팅 콰이어(Everlasting Choir)'를 조직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지역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길 간구함으로 베들레헴의 기적을 이루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길 소망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베들레헴에 가는 꿈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콘서트뿐만 아니라 성지순례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로 방영한다는 계획이다.

방문 예정 순례지는 베들레헴 지역, 헤브론 지역, 사해 지역, 엠마오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등이다.

이번 콘서트 공연을 앞두고 있는 '에버레스팅 콰이어(Everlasting Choir)' 성가단 지휘를 맡게 된 전현미 지휘자는 베들레헴 콘서트 스테이지 위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단원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전현미 지휘자는 미국 합창계의 거목 로버트 쇼(Robert Shaw) 지휘자로부터 사사 받은 도널드 뉴엔(Donald Neuen) UCLA 교수로부터 사사한 재원이다.

성가단원 모집을 위해 오는 3월 14일(목)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교회에서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는 전 지휘자는 UCLA에서 작곡과와 동대학원에서 합창지휘학을 졸업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UCLA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지휘, 가디나 대흥교회 찬양대에서 지휘를 한 경력이 있으며, 사우스베이 여성합창단을 지난해 2월에 창단해 현재까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전현미 지휘자와의 일문일답.

-어떤 성가단을 만들고 싶나

로버트 쇼(Robert Shaw) 지휘자나 도널드 뉴엔(Donald Neuen) 교수에 이어 수준 있는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싶다. 우선적으로 성가단원이 모여지면 열심히 연습해서 베들레헴에서 구주 예수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다.

-베들레헴에 가서 어떠한 곡들을 찬양하게 되는지

“어둠세상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와 같은 흑인영가 한 곡과, 마지막 곡을 관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장식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에 서는 시간이 20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세 곡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연습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매주 일주일에 한번정도 연습을 할 것이다. 충분한 연습이 이뤄지면 각 교회에 방문해서 순회공연을 할 것이다.

-예비 찬양 단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매주 교회에서 찬양단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이다. 동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서 찬양을 한다면 그 감격의 눈물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크리스마스 때라면 감격에 벅차올라 평생에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길 소망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베들레헴에 가는 꿈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콘서트뿐만 아니라 성지순례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문의: (310)329-2761(이백호 목사), (310)381-9835(전현미 지휘자)

성장하려면 “전도보다 어려운 것이 정착”

좋은목회연구소 새신자 정착 노하우 전해

한국 좋은목회연구소(김민정 목사)는 25일(현지시간) 서울 용산구 강변교회에서 새가족부 운영 세미나를 열고, 새가족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신자 교육에 관심 있는 사역자 및 성도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김민정 목사(강남우리교회 담임)는 새신자 관리에 대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새가족이 등록했다고, 그들이 꼭 교회에 남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들은 언제든 교회 온 것을 후회하고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은 대부분 ‘전도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정착하지 않는 교회’라며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는데, 교회교육은 변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뻔한 이야기’가 아닌 조금 다른 접근방식을 추구하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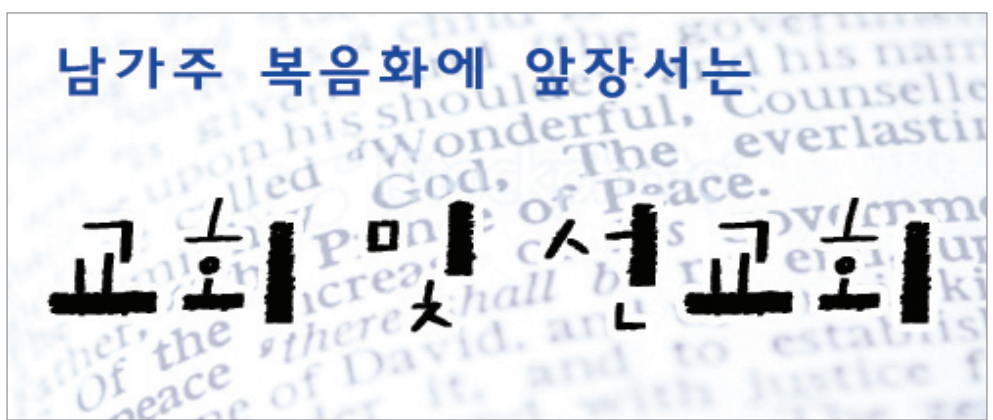
이날 강연에서 김 목사는 새신자 교육강의 및 성경공부 운영방법, 새가족부 운영을 위한 지원부서 및 바나나 조직구성과 행동

지침 등의 매뉴얼, 새가족 영접과 교육 및 관리요령, 행정과 사역보고 방법, 새가족에게 전파하는 요령과 호칭 사용, 만남과 지원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했다.

또 김 목사는 우선 새가족을 대할 때 유의 사항으로 ▲웃차림, 인사, 표정 등 예의를 갖춰라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대하라 ▲말하기보다, 말하는 것을 듣라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함께 나눠라 ▲새가족의 신상에 대해 너무 자세히 묻지 말라 등을 꼽았다.

아울러 김 목사는 새신자들에게 교회등록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줄까”에 관한, 기대되고 떨리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건이 가능하다면 ▲담임 목회자와의 만남 ▲등록용지 작성 ▲사전촬영 ▲환영선물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중소형 교회·대형교회·초대형교회·미국한인교회 등 교회규모와 지역에 따른 새가족부 특성과 이에 따른 운영방법 등이 세미나에서 소개됐다.



LA 지역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p> <p>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p> <p>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p> <p>4부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원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성경공부 오전 7:30(화) 오전 10:30(수)</p> <p>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p> <p>김광삼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p> <p>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p> <p>김성민 담임목사</p> <p>나성한인교회</p> <p>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오전 10:30(수)</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2부 오전 6:30(월-금) 오전 6:30(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p> <p>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김요섭 담임목사</p> <p>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p>
<p>김수철 담임목사</p> <p>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더문터문 47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p> <p>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p> <p>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 9: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최원형 담임목사</p> <p>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p> <p>927 S Menlo Ave. LA, CA90006 T. (213) 388-1927,388-2105</p>
<p>박승부 장로</p> <p>17,27,37기 수료생매주, 현재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물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p> <p>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p> <p>LA 2836 w 8th st #106 LA 90005,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T. (213) 381-7273</p>	<p>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p> <p>김혜성 담임목사</p> <p>영생장로교회</p> <p>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김세환 담임목사</p> <p>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p> <p>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p> <p>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25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F. (213) 381-2201</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30(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비르, 교회간의 흐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p> <p>대표 김갑선 목사</p> <p>지구촌 농업선교회</p> <p>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p> <p>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도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p> <p>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p> <p>김기섭 담임목사</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혼이세를 책임지며, 이혼이정서치료, 선교경영을 순종하는교회</p> <p>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p>
<p>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p> <p>박병구 담임목사</p> <p>성재복음선교회</p> <p>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598-9932, (213) 327-9200</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p> <p>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원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p> <p>서건오 담임목사</p> <p>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교회</p> <p>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p>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에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유니/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실현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에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후 12:00
3부예배 오전 11:45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과 사명을 뜨겁게 사명하여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angka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민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8:00
점심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중보기도회 (목) 오후 7:30
성령집회 (금) 오후 8:00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우업술)
오전 12:00 (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 예배 오전 11:00
2부 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11:00

제자훈련 (수) 오후 8:00
중보기도회 (목) 오후 7:30
성령집회 (금) 오후 8:00

심형섭 담임목사

하늘빛 선교교회
예배에 생명유익과 말씀으로 훈련하며 민족과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

1011 Grandview Ave. #D Glendale, CA 91201
T. (818) 247-4673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오바마 정부, 美 역사상 종교 자유에 가장 적대적”

가족연구협회 종교적자유센터 행사에서 비판 잇따라

보수 진영의 전문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미국 역사상 종교적 자유에 가장 적대적인 행정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연구협회(the Family Research Council) 종교적자유센터(the Center for Religious Liberty)의 켄 크루코와스키(Ken Klukowski)는, 최근 가족연구협회가 ‘미국 내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가족연구협회는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해 “종교의 자유는 미국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자유다. 최근 몇십 년 사이, 공공장소에 종교를 전시하는 것에 대한 적대감이 늘었다. 우리는 이 전투 지대를 알고, 우리의 첫번째 자유를 대한 침해에 대해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크루코와스키는 “과장 없이 말한다. 대통령 주변의 정치인들은 정도를 벗어난, 보건부 명령에 대해 그를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대통령은 어쨌든 그것을 따르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베크트종교자유재단(the 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의 아델 케임(Adele Keim) 법률 자문위원과 자유옹호연맹(Ali-

liance Defending Freedom)의 켈리 파이에도렉(Kellie Fiedorek) 소송 자문위원도 이 행사에서 초청연사로 발언했다.

케임은 보건복지부의 ‘예방적 서비스’ 명령을 둘러싼 논쟁에 관해 말했다. 그는 “나는 이것이 우리가 지난 몇 십년간 겪었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위협 중 가장 중대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이에도렉은 동성애 권리단체가 기독교 사업가들에 반대하며 제기했던 다양한 법적 소송들에 대해 말했다. 이 중에는 동성결혼식의 사진을 찍기를 거부했던 사진가와, 동성연합 환영파티를 위한 케익 제공을 거절한 제빵사가 포함됐다.

크리스천포스트가 파이에도렉에게 “종교적 자유를 위협하지 않은 채로 동성애자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묻자, 그는 “그것이 항상 논쟁거리”라며 “양쪽 전문가 모두 거기에 긴장이 있다고 믿는다. 특정한 견해를 지닌,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지닌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긴장은 항상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주디 한 기자

“1인 체제의 교회는 비성경적... 성도들 권리 빼앗아”

허틀랜드 바이블 인스티튜트 설립자 글렌 뉴만 일침

언약생명선교회(the Covenant Life Fellowship)와 텍사스에 있는 허틀랜드 바이블 인스티튜트(Heartland Bible Institute)를 설립한 글렌 뉴만(Glenn Newman)은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 ‘Pastors Move Over: Make Room for the Rest of Us’에서 “1인 목사 체제의 교회 행정 구조는 비성경적이며, 성도들에게서 빠르게 양육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배소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12~14장 말씀은 다른 이들을 위한 모든 믿는 자들 사역의 분명한 체계를 보여준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elders)이 섬기는 리더였다. 그들은 또한 서로의 사역에서 개인적인 은사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성경 구절을 인용해 전했다.

뉴만은 지난 15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성도들이 쉽게 잊혀질 우려가 있는 대형교회에서, 교회 행정에 대한 CEO 식 접근은 우려를 불러왔다”며 “이는 많은 부분에서 수동적이고 비참여적인 신도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을 목사에 맡기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신도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태도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에 나오는 교회에는 CEO 형태의 지도자가 없었다. 사실 목사가 필요한 양들 무리에서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목사들만 있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

배는 4세기 이후 예배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1인 목사 체제는 4세기 이후 가톨릭 전통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개신교 운동은 그들의 교회 행정 방식으로 이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4세기 이후에는 우리가 교회 예배를 잘못 드러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나머지 모두는 단순한 구경꾼”이라고 말했다.

“대형교회 목사는 실제로는 아무런 목회를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대 위에서 목사의 쇼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배가 없다. 목사는 교회를 운영하고 부목사는 중간 매니저와 같은 것”이라고 뉴만은 전했다. 그는 “나는 교회 이사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영적 지도자들(spiritual elders)이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뉴만은 “성경적인 증거 역시, 각 지역 교회 모든 크리스천들이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군주제와 같이 운영돼 왔으며, 현대 개신교회는 기업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나의 책을 통해서 참된 교회에 대해 더 많은 시각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베네딕토 16세 마지막 삼중기도 “자임은 하느님의 뜻”

바티칸, 새 교황 선출 둘러싸고 흑색선전에 몰살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4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마지막 삼중기도를 지례했다.

교황은 “주님은 내가 산에 올라 더욱 기도와 명상에 헌신하길 원하셨다. 이는 교회를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시면 나이와 체력에 맞는 방식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초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필수적인데, 하느님 앞에 제 스스로 끊임없이 성찰한 결과 고령으로 저의 힘이 더는 교황직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지난 몇 달간 저는 기력이 약화돼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챌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사의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 교황 선출과 교황청을 둘러싼 루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 역시 “교황의 사임이 이같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마의 라레푸블리카(La Repubblica)는 21일 교황의 실제적인 사임 이유는 교황청 내 부패 등에 대한 충격적 보고서 때문이라고 전했다. 교황은 지난해 12월 17일 자신의 지시로 부적절한 자금 관리나 정실 인사, 동성애, 공갈 협박 등을 조사해 온 추기경 3명

이 올린 300쪽 분량의 비밀 보고서를 받은 후 충격을 받았고, 오랫동안 숙고해 오던 사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날 베네딕토 16세가 로마 교구의 성직자들에게 “세상의 악, 고통, 타락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훼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보고서와 관련된 발언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 바티칸은 “교황의 사임을 둘러싼 보도들은 확인되지 않은 안락한 낱조”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페데리코 롬바르디(Father Federico Lombardi) 바티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추기경은 많은 형태의 압력을 받아왔다. 이러한 보도들 역시 새 교황 선출에 개입하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황 선출을 위해 콘클라베(비밀회의)를 시작할 즈음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개탄한다. 확인되지 않고, 확인할 수 없고, 완벽히 낱조된 보도는 사임하는 교황과 교황청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롬바르디는 그러나 언론이 교황 선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교황은 오는 28일 물러나며, 후임자는 추기경단 비밀회의인 ‘콘클라베’를 통해 선출된다.

마지막 때에 대한 '3가지 관점'을 인포그래픽으로

조쉬 바이어스 '프로젝트 66' 기획 일환으로 제작·발표

성경 66권에 관한 신학적 삽화를 제작해 온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복음주의 목회자 조쉬 바이어스(Josh Byers)가, 마지막 때에 관한 크리스천의 3가지 관점을 요약한 새로운 인포그래픽(Infographics 또는 Information graphics;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의 시각적 표현)을 최근 발표했다.

이 인포그래픽은 '프로젝트 66'이란 제목의 기획의 일환이다.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다른 관점들을 담은 도표를 필요로 하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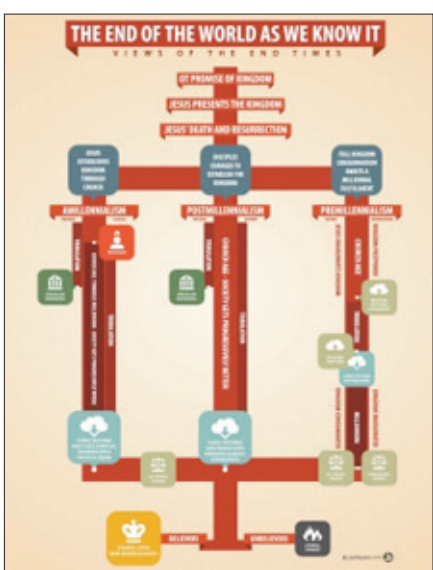
기독교에서 마지막 때는 대환란,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는 체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으로 설명되며, 전천년설·후천년설·무천년설로 등으로 나뉜다. 이 논쟁에 있어, 다른 신약성경이나 구약의 예언서도 참조되나, 보통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 인용된다. 비록 이 사건의 예정된 시각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일고 있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의 한 시점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친다"고 믿는다.

바이어스는 "나는 내 자신의 기록과 서류를 통해 많은 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몇몇 친구들과 공동으로 연구했다. 주된 어려움은 가능한 한 많은 관점들을 정확하게 나타내면서 도표를 간소화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믿음에 관해서 매우 여러 종류의 파가 존재하기에 이 도표는 아마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웹사이트에 "이 도표가 보여주는 재미있는 개념은 각각의 관점이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점이다. 초기 관점은 구약에 약속되고 예수에 의해 나타난 그 왕국은 영원한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둘러싼 논쟁의 요점은, 대환란과 휴거와 그리스도 왕국의 성취와 그 형태와 관련된다. 대격변의 사건으로 인한 강도 높은 고난의 때인 대환란은 세 관점 모두에 포함되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논란 중이다.

바이어스의 도표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지상으로부터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그를 만나는 사건"인 휴거는 전천년설을 믿는 자들



미디어 개발자 조쉬 바이어스가 제작한, 마지막 때에 관한 인포그래픽.

만 믿으며, 이들 안에도 휴거가 대재난 전에 일어날지 후에 일어날 지에 대해서는 의견 합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이 인포그래픽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예수가 교회를 통해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 반면, 후천년주의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지상왕국 건설의 위임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설명한다.

바이어스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The Resurgence ministry website의 바탕화면에서 영감을 받아 신학적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개의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데 10시간에서 20시간이 걸리다며, 매주 새로운 인포그래픽을 발표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가 가장 아끼는 삽화는 "The Book of Bible"이다. 그는 레위기에 묘사된 5가지의 제사 초점을 맞춰 인포그래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로젝트 66'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이를 통해 스스로에게 창조적·신학적 도전을 하길 원한다"며 "나는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혁신적이며, 현대적이며, 흥미로운 교육 도구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다.

카피블로거미디어(CopyBlogger Media)의 개발자인 바이어스는 아이오와의 포크에서 아내와 세 명의 자녀와 살고 있다. 그는 레이크사이드펠로우쉽교회에서 학생사역 감독으로 섬기고 있다.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예배 오전 1:00

송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한아침성년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일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1부 예배 오전 9시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2부 예배 오전 11시 (토) 오전 6시
영어예배(1부) 오전 9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영어예배(2부) 오전 11시 금요일아침

배명환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956-7640 F. 714-956-7909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 30분
중교동부 오후 3시 금요침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으로 장려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 (949)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본당)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10:00(미리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미리본당)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6:00(토)

김한요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리본당: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미리본당 건너편)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cpc.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교회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한중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 (949)857-9242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교동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최상준 담임목사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 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관음받은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과 생명의 사명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교동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침중교동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6: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목요일 7:30
주일예배 오전 2: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562-903-2600, Cell: 714-600-7700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허기암 담임목사

남가주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이집트 무슬림들, 콥틱 교회 공격 후 십자가 불태워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이집트 페이움 프로방스(Fayoum Province) 무슬림들이 교회를 공격해, 기독교인들에게 돌을 던지며 십자가 모형을 부수고 불을 질렀다고 모닝스타뉴스(Morning Star News)가 한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집트의 마르 기르기스(Mars Girgis) 교회에 대한 공격은 이날 오후 3시예배가 끝난 이후에 발생했으며, 이는 이 지역 콥틱 기독교인들에 대한 2번째 공격이었다. 카이에서 동남쪽으로 103km 떨어진 타미야 마을에 위치한 이 교회는, 마을 주변에 살고 있는 180명의 콥틱 정교회 가정들의 예배 중심지였다.

30세의 콥틱 정교회 한 교인은 "이날은 평범한 날로 예배와 주일학교가 있었다. 평소처럼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배를 드린 이후 집으로 돌아가고,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었다. 우리가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마치 TV 속에 나온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자들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 교회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약 20~30명의 마을 사람들이 교회 밖에 모여서 돌을 던지고 창문을 부렸다. 대부분 무슬림인 이들은 교회 건물에 화염병을 던지고, 불을 질렀다. 한쪽에서는 교회 안의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교회 돌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무너뜨렸다.

공격은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16일 교회에 다시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공격으로 교회 지붕에 있던 물 저장고가 터지면서 다행히 불이 붙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공격으로 목사를 포함한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교회 옆집에 살고 있는 무슬림이 벽에 구멍을 낸 후 교인들을 몰래 감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신도들은 약 3개월 전 이 구멍을 발견했으며, 이 무슬림 가족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을 무슬림 거주지 옆에 교회 건물을 둔 것은 이슬람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헐바키기 시작했다.

교회는 '중재 회의'를 통해 이 집을 사겠다고 제안했으나, 무슬림들은 신도들이 이 건물 전체 혹은 일부를 포기하는 것 외에 어떤 해결책도 거절했다. 목사는 교회 건물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사인하도록

압박을 받았고, 교회 벽에 구멍을 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무슬림은 약 10년 전에 교회에 인접한 집으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 기르기스 교회는 80년대에 설립됐으며, 당시에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벽만 빼고, 벽돌로 다시 재건축됐다.

중재 회의에서, 정부 관리들은 교회 관계자들에게 벽에 뚫린 구멍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전했다. 이 구멍은 당시 공격으로 인해 1평방미터로 커졌다. 교회가 첫번째 공격을 받을 때 경찰은 이를 목격하고도 멈추지 않았으나 이틀째에는 일부 마을 사람들을 말리기도 했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는, 영향력 있는 한 살라피 무슬림이 이웃들을 압박하거나 교회 신도들과의 싸움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무슬림이 교회를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부 교회 멤버들은 이같은 공격이 예상됐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2011년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공동체 내 특정한 무슬림들 사이에 긴장이 늘었으며, 교회 건축을 하던 10명의 청소년들이 공격하지 말라고 매일 밤 이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금요일 공격은 이들이 없을 때 발생했다.

지난 1월 15일에도 수백 명의 무슬림들이 파누스 마을의 공동체를 공격했다. 이 마을에서는 콥틱 자선단체가 교회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지역 무슬림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단계를 고소한 데 이어, 지역 모스크 지도자들은 이슬람을 보호해달라고 확성기로 요청했다. 일부 무리들이 교회 주변으로 몰려들어 건축을 방해했으나, 이에 연루된 어느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다.

이번 타미야 공격 이후, 정부는 기자들의 현장 접근을 막기 위해 교회 근처에 장애물을 쳐 놓았다. 교회 목사들은 "정부 관리자들이 공동체 내 콥틱 기독교인들 괴롭히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용히 있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 목사는 "무슬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재 회의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무료증정



HQ 구연산 사랑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원산지 개선과
원산지 인증에
우수한
일파 구연산
\$50
ea + tax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270 ~~\$100~~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280 ~~\$100~~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신제품 출시 안내

HQ구연산을 원료 그대로 물에 타서 드시다 보면 치아가 염려되고 신맛으로 인해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캡슐 제품을 내 놓습니다. 구연산과 아사이베리, 마카, 과라나, 미국 야생 산삼 등을 넣어서 위장을 보호하며 보다 더 강력한 HQ구연산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형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몰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음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과대학이나 약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기편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육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

이성훈 | 요단 | 3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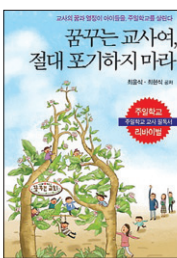
성경적 기도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저자가 '그리스도인의 기도학교'를 통해 많은 성도와 함께 고민하며 훈련한 내용을 담은 책이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훈련으로 기도의 실재를 다루고 있으므로 기도학교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다.



꿈꾸는 교사여, 절대 포기하지 마라

최윤식 · 최현식 | 브니엘 | 216쪽

아무리 사탄이 방해해도, 온갖 시험이 닥칠 때도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고 사역을 하셨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은 빛나지도 드러나지도 않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지금 당신이 포기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주일학교는 무너지고 만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꿈을 풀어보자.



목자와 양

김남준 | 생명의말씀사 | 2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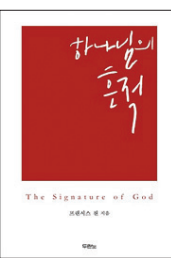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부제의 이 책에서 청교도주의자인 저자는 성도가 목회자를 교회 근로자로 여기고 목회자가 성도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를 통탄하며, 목양 관계의 올바른 의미와 목적 그리고 참다운 목양의 회복에 관해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의 흔적

프랜시스 찬 | 두란노 | 232쪽

이 책을 통해 프랜시스 찬의 삶과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들여다볼 수 있다.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있는 한인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프랜시스 찬은 "바쁜 삶을 떠나 여호와를 갈망하는 데 힘쓰며, 그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고 말한다.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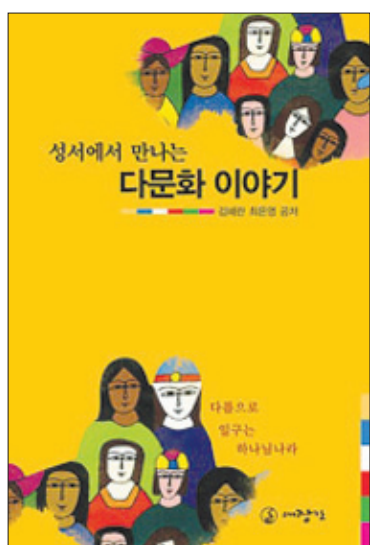
“애굽으로 피하신 아기 예수님 가족도 ‘다문화가정’이었죠”

여신학자 2인의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쫓겨난 이집트 여성 하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모압 여인 룓, 두아다리사 자색 옷감 장사로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가 됐던 루디아... 다문화 시대를 맞아, 성경 속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찾아내 모아놓은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대장간)>가 출간됐다. 책을 보면 성경 속에 다문화의 삶이나 상황, 현실을 담은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책을 함께 쓴 2인은 캐나다에서 '이주여성'으로 활동 중인 실천신학자 김혜란 교수(세인트앤드류스 신학대학원)와 1년간의 미국 생활로 잠깐이지만 '이주민 경험'을 했던 최은영 교수(한남대)이다. 둘은 "한국 사회에게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이념일 뿐 더 이상 사실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고, 이들에 대해 배제와 차별로

이어지는 현실과 위협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며 "성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이자 윤리적 기초로 작용하는데, 소위 '다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지혜를 제공하는지 하는 고민이 책의 출발점"이라고 썼다. 이들은 각 사례마다 먼저 성경 본문이 가진 배경 및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상상력을 가미한 주인공의 가상 '독백'을 통해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다문화의 현실을 드러내며, 본문과 관련해 연결할 수 있는 '다문화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던지는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들을 나누고 있다. 저자가 여성 2명이라 그런지, 특히 하갈과 다말, 라합과 수로보니게 여인 등 '이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실제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독백'에서 사용한 성경해석 방

법도 '여성주의적 성서비평', '이야기 비평', '독자반응 비평'이다. 여성을 중심으로 연령과 언어, 계급, 인종과 종교, 경제적 지위와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인물 12인이 등장하는데, 그 기준은 이주 경험과 적극적 행동, 이름에 대한 이해,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 등을 고려해 안배했다. 저자들의 시선은 헤롯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떠났던 예수님과 그의 부모 요셉·마리아에게도 향한다. 그들 역시 애굽에서 '이주민'일 뿐이었다는 것. 8장 '죽음을 피해 저항한 피난민-예수 가족'에서는 "다문화 관점에서 볼 때 예수 탄생이 인종적인 사실은 이러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인종·문화를 대변한다는 점"이라며 "예수님 탄생 이전부터, 그리고 태어나 피난민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과정에서 다문화라는 경험, 다른 이들과의 만남과 돌봄이 예수님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김혜란 · 최은영 | 대장간 | 208쪽

저자들이 들려주는 성경 인물들의 속마음은 이렇다. "비록 이스라엘 땅에 산 이주민으로,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진 못했지만 이제 알아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삶을 지켜나갈 거예요(하갈)." "왕따는 정말 악한 귀신입니다. 이 귀신에 들리면 성장하는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 되고요, 그 아이들이 입은 상처가 결국 시간이 지나 우리 사회에 다시 생채기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왕따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그 귀신을 없애는 일에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수로보니게 여인).", "다름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는 다름이 있고, 존중과 배려로 이어지는 다름이 있어요(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대용 기자

사역과 이후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질문한다.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황수원 목사, 제단 이사장 유당열 목사

구별됨이 능력이다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근대 올림픽 116년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가 작년 런던 올림픽 수영부분에서 나왔다. 바로 미국의 수영천재 마이클 펠프스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네개, 은메달 2개 등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출전을 포함한 총 4번의 올림픽에 참가하여 통산 22개의 메달을 목에 건 최초의

선수가 되었다. 그가 이렇게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데에는 그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삶의 배경의 영향이 컸다. 어린시절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를 치료하기 위해 수영을 시작했던 그는 물이 두려워 얼굴을 담그지도 못하는 그런 소년이었다. 그러나 수영에 임할 때마다 새로운 집중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애를 새로운 장점으로 개발시키게 된다. 특별히 신체적으로 상체가 하체보다 긴 수영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코치의 말에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수영훈련을 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하는 능력을 보이게 되었다. 그 이후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인간승리를 보여주기까지, 그가 얻은 영광에는 어머니의 숨은 헌신과 타고난 신체조건도 있었지만, 남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마이클 펠프스

만의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한 일례로 그는 잠을 자면서도 수영을 위한 훈련에 몰두한 것을 볼 수 있다. 수영이나 육상 등 기록종목 선수들은 큰 대회를 앞두고 고지대 훈련을 하기 마련이다. 기압이 낮아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훈련함으로써 실제 경기에서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펠프스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큰 대회를 앞두고 서만 이 훈련을 하는 것과는 달리, 평소에도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방에 특별 상자를 설치하고 그 안에 기압 변화를 통해 해발 8500-9000피트 정도의 고지대 환경을 마련하여 그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다. 즉, 매일 밤 자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훈련이었다. 마이클 펠프스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될 수 밖에 없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잠을 자는 것조차도 일상의 삶으로 여기지 않고, 남들과는 달리 자신의 목표

와 꿈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연장으로 구별하여 사용했을 때, 그는 다른 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24시간의 하루이지만, 그 시간을 남들과는 달리 구별하여 사용하는 자만이 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동일한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남들과는 달리 구별하여 사용하는 자만이, 이 물질이 주는 유의과 의미들을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업이지만, 다른 이와 구별된 집중력과 성실함을 가지고 그 분야에 헌신하는 자만이 사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구별됨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구별됨의 능력이 기록에서 나온다. 기록이라는 말 자체가 '잘라내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갖는 것이다. 기록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와는 다른 목표를 향해 나

아가는 것이다. 기록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삶을 사는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요즘 들어 부쩍 늘어가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차가운 냉소 앞에 세상을 이기기에는커녕,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만을 유지해도 다행이라는 자성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 문제의 해결은 교회가 다시금 기록의 능력, 곧 구별됨의 능력을 회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타락과 우상숭배의 온상이었던 가나안 땅에 참 구별됨의 모델로 세우신 레위인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평생을 구별되어 살아야 했던 저들, 남들과는 너무도 다른 삶의 방식과 기준과 가치관을 살아야 했던 저들이었으나, 그 삶 때문에 능력과 영향력을 이스라엘 역사의 3500년 동안 유지하며 살았던 레위인의 기록의 능력이 다시금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레브 쇼메아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며칠 상간으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 아이를 깔아 죽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잠에서 깬 여인은 놀라 어쩔 줄 모르다가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감쪽같이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알아봅니다. 자신의 아기가 죽은 아이와 바뀌었다는 것을 안 생모는 속을 태우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왕에게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신생아는 아직 개성 있는 외모를 갖추지 못했기에 누구의 자식인지도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급 관리들의 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에게까지 소급되어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사건은 충분히 미궁에 빠질 위험이 있는 완

전범죄였습니다. 요즘처럼 전자감식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두 여인의 직업이 창기이니 자식을 식별해 줄 변변한 남편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 사건을 심리학적 방법으로 너무나도 쉽게 풀어버렸습니다. 한 병사에게 큰 칼을 가져다 아이를 절반으로 잘라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한 것입니다. 당연히 생모가 아닌 여자는 "나만 자식을 잃을 것이 아니라, 너도 잃어야 한다"는 동반심리가 작용해 좋은 생각이 라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모는 강렬한 모성 본능으로 아이의 소유권을 즉시 포기해 버립니다.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절규합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과 몸짓을 읽은 솔로몬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저 여인이 아이의 생모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운 동화 같은 재판이지만,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 시대상 속에서는 거의 신기에 가까운 비범한 발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이 사건의 실마리를 어디에서부터 푼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브야"의 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왕이 가질 수 있는 "장수"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일 먼저 다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영아의 생모를 찾아주는 재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지혜"(호크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히브리어로는 "레브 쇼메아" 즉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어 어려운 재판들을 많이 다루게 될 때, 잘 듣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결론도 없는 불평으로 점철된 넋두리', '잘난 척하는 소리', '내 의견과는 정반대의 소리' 그리고 '모욕적인 조소' 같은 들어주기 어려운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재판장에서 간절한 생모의 마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레브 쇼메아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신윤일 목사
실로암한인교회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내의 뜻이 이루어 집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뜻도 아니고 아내의 뜻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폭탄을 가진 것이 거의 확실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 사회는 막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되면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입지가 견고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도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

국이 북한과 일대일 대화 상대로 여겨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높아 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는 자주적(?) 자세가 돋보이기도 합니다. 또 북한 지도층과 사람들의 자존심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냉수 마시고 이를 쐬시는 허장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신 임창호 목사님이 한국 탈북자 기독교인 총회장으로 있습니다. 부산에서 탈북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북한은 이루어 말할 수 없는 내부 붕괴 직전의 양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탈북자들이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 2만명 정도만 한국으로 왔습니다. 오래 전 미국에서 'Black panther(흑표병)'라는 흑인무장단체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무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과격 흑인단체였습니다. 결국은 경찰들의 무력 진압에 의해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군사력의 부족이 아닌 내부의 부패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소련이 핵이 없어서 붕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핵이 답이 아닌데...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생각처럼 잘 되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미국 대륙 횡단 선교회

본 선교회는 청소년 캠프사역으로 대한민국 2세들에게 여름방학(30일) 겨울방학(10일) 동안 광활한 미 대륙을 횡.종단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며 신비로운 자연과 유명 관광지, 유적지, 선교지를 답사하고 동부 IVY 리그 대학들을 탐방하여 큰 꿈과 용기와 비전을 갖게하며 영적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사랑, 섬김, 협력, 리더십을 키우며 예수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 비 영리 선교 단체입니다.

***본 선교회에 뜻을 같이하실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25국립공원, 30개주, 40명소, 1만 마일, 5개 IVY리그 대학

대표 : 최영봉 목사

1134 S Western Ave #A-5 LA CA 90006
Tel. 213-271-5034

LA-> 요세미티NP-> 타호호수-> 솔렉시티(소금호수)-> 엘로스톤NP-> 러쉬모어NM(대통령 큰바위얼굴) 시카고(시어터타워,오대호)-> 클리블랜드->나이아가라 폭포-> 보스턴(하버드대학교,MIT 공과대학교)-> 뉴 헤이븐(예일대학교)-> 뉴욕(맨하탄, 자유여신상,엠파이어빌딩,NY대학교,콜롬비아대학교)-> 워싱턴 D.C (백악관,국회의사당)->ST. Louis-> 덴버(로키마운티NP,공군사관학교)-> 콜로라도 스프링스(파이크스 피크, 로알고지 다리)-> 블랙캐년 NP->아쉬NP-> 캐년랜드 NP-> 나바호 인디언 선교지-> 파월호수NP(8시간 유람선)-> 그랜드 캐년 NP->BRYCE캐년 NP-> Zion 캐년 NP->라스베가스-> LA

말은 사람의 미래를 좌우 합니다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말은 마음의 알입니다. 마음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꿈의 말의 씨앗을 심고 잘 가꾸면 심은 대로 거두는 농작의 법칙과

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말은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상대방에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생각도 바뀌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요.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계속 좋은 말을 하면 말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하니 결국 건강한 자아상으로 나오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불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신 모습은 당신이 말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하는

말이 미래를 엮습니다. 사람은 하루 중 눈을 뜨고 있을 때 70%는 말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말하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독설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줍니다. 공격하는 말은 듣는 자에게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아침의 말은 들을 때는 기쁘지만 나중에는 해를 줍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을 책임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내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불결한 말이나 좋은 일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진절할 말, 선한 말은 심령을 기쁘게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16장 24절) 선한 말은 유쾌한 말, 즐거운 말, 좋은 말, 듣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말,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잘못된 언어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공격적인 언어습관, 비웃는 언어습관, 남을 무시하는 언어 습관, 비난하는 언어습관, 앞다리고 뒤다르게 말하는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들은 대로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니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좋은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종의 복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문제되는 말, 괴로운 마음 있으면

그 때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언어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언어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신비합니다. 말은 한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1) 먼저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좇으며 2) 먼저 좋은 점을 말하고 3) 긍정적인 말, 복된 말을 해야 하고 4) 말할 때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유익이 되고, 담임목사에게 덕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새역사를 창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첫 지팡이



이학진 장로
사랑의빛선교교회

성경을 통독하기 전에 우선 성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의 배경을 알아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보다 쉽게 이해되고 끝까지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칼럼에서는 성경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유일신)이시다' 라고 말하는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왕, 학자, 철학자, 어부, 시인, 의사, 정치인, 역사가, 선지자, 등 적어도 40명 이상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간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자라고 말합니다.

인간 저자들이 성경님의 도움으로 그때 그때의 자기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록했는데 이것들이 만나고

을 BC200년경 혹은 그 이전부터 구약성경(39권)과 같이 취급되었던 14권의 기독교 경전으로 AD1885년에 KING JAMES VERSION 성경에서 삭제되어 지금의 66권의 성경으로 남게 되었으며 위경은 베드로행전 등, 암흑시대와 신약시대에 흥미하던 복음서를 담은 많은 가짜 복음서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예수 구원이란 주제를 가지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보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를 합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십자의 보혈을 통한 예수 구원입니다. 이를 L.A. 총현선교교회의 고(故) 정상우 원로목사님께서는 성경의 어디를 찢어도 예수님의 피가 배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 17장11절에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생명을 드리는 피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지정 하신대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피 대신에) 동물을 잡아 그 피로 속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지는 속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만이 가능한 것이며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믿음)인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영감을 받아'는 성경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의미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풀이해 준 것입니다.

또한 역사인 동시에 해석으로서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말해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여호와와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말씀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려고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약에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타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신임장(아그레

망)으로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이 구약이라는 신임장을 들고 와 우리의 복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구약이 없다면 예수께서는 신적 근거(타당성)를 잃게 된다. 네 사람의 성인의 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리고 신약이란 헬라어는 '새 언약'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준을 받았으며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의 언약이 신약성경을 하나로 묶는 중심 주제입니다(요 3:16/참고, 새 언약, 눅 22:20, 고전 11:25, 히 8:7-13, 9:15-17).

초기 기독교 교회가 사복음서를 신약성경의 맨 앞에 둔 것은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이 아니고 구약과의 연결고리이며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은 구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구약의 성취로서(이루어짐) 나머지 신약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과 연결됩니다. 구약의 말라기의 끝 절(4:6)이 강한 회개와 권면으로 끝을 맺으며, 이는 세례요한의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3:2)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구약과 신약은 근본적으로 연결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신임장(아그레망)으로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이 구약이라는 신임장을 들고 와 우리의 복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구약이 없다면 예수께서는 신적 근거(타당성)를 잃게 된다. 네 사람의 성인의 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리고 신약이란 헬라어는 '새 언약'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준을 받았으며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의 언약이 신약성경을 하나로 묶는 중심 주제입니다(요 3:16/참고, 새 언약, 눅 22:20, 고전 11:25, 히 8:7-13, 9:15-17).

초기 기독교 교회가 사복음서를 신약성경의 맨 앞에 둔 것은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이 아니고 구약과의 연결고리이며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은 구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구약의 성취로서(이루어짐) 나머지 신약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과 연결됩니다. 구약의 말라기의 끝 절(4:6)이 강한 회개와 권면으로 끝을 맺으며, 이는 세례요한의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3:2)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구약과 신약은 근본적으로 연결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562-467-1114
 ce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Life



건강 칼럼

“저는 중고등학교때부터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드나들었고, 음란동영상을 호기심으로 보곤 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수많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왔어요. 머릿속에서 성적인 상상이 떠나질 않고 계속 맴돌아요. 교회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서 미치겠어요. 성적 중독인 거 같아요. 항상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혼자 있으면 슬프고 외롭구요...”

“성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한번 떠오르기 시작하면 제어하기가 힘들고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어린 여자든 중년 여자든 한번 떠오르면 계속 상상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은 아닌 것 같은데 자주 집착하게 됩니다.”

“남자 친구와 임신에 대한 불안이 큰데도 계속 성관계를 하고, 남자 친구가 제가 금방 질린다고 차버리면 또 금방 다른 남자를 찾아요. 저는 사랑에 항상 굶주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모든 중독이 사랑의 결핍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성중독 역시 역기능 가정에서 어린시절 성적학대를

받았거나, 충분한 사랑과 수용을 받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상처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생긴 심리적 질환입니다. 사랑이 너무 부족하여,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성에 집착하는 무서운 병이 성중독입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자신이 못하고 가지 없다는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수치심과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못한 자아상을 가진 자신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병적인 수치심과 분노와 외로움에 시달리며 성장한 사람들은 성 중독을 비롯한 다른 중독에도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어 점점 더 타인과 단절됩니다. 그러면서 성적 행위로 채워려는 심리적 욕망이 점점 더 거세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독적인 증상을 통해서만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마치 갈증이 너무 심하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자신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성장기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성적 중독과 죄악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로스 캠벨 박사는 “직간접적 경험을 통틀어 볼 때, 성의 문제를 겪는 사람치고 사랑이 풍부하고 따뜻한 아버지를 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남성상의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고, 냉정하며, 감정적 정서적 단절로 인해 자녀와 친밀감을 이루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흔히 보게 되는 것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부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집착하는 현상입니다. 남편에 의해 채워지지 않는 결혼의 공허함을 보상받고 채우려고 하는 행위는 어머니로서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자녀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며 ‘대리 남편’ 역할을 해야하는 아들에게는 무

진짜 사랑을 찾으세요

결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게 됩니다. 또한 소년의 성 정체성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쌓여 성 중독의 양상을 만들었고, 현재 미국에서만 약 2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마약이나 알콜 중독보다도 더 거대하고 무서운 중독 증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전파로 인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침투되고 있고, 그로 인해 사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너무 굶주려서 정신없이 사랑을 찾는 병적 행위이지만, 정작 거기에 사랑이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결코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 중독의 증상은 영적 죄악과 연결되어 사람을 더욱 파괴시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성에 탐닉하게 된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시

절의 상처를 치유받고 결핍을 채우기 시작하면 서서히 치유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15장 13-14-”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면, 아무리 심한 결핍이라도 신속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기 힘들 정도로 상처의 두께가 커서 마음문이 굳게 닫혀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분노가 더욱 더 커지게 되고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처를 꼭 치유하고, 사랑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 당신의 극심한 결핍이 채워지고나면, 당신은 성 중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진짜, 사랑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소장

아하! 행복한 감정이 보인다

아빠 같은 남자

“어린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나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요!” “아! 그래요,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군인이었지요? 또?” “네, 저는 세종대왕이요!”

“그렇군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훌륭한 분이요? 또?” “저는 아빠요! 우리 아빠를 가장 좋아하고, 존경해요!” “네? 아빠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 자신이 어떤 남성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동성시 또는 남성으로서의 역할 모델을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다. 남자 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태도와 역할을 보면서, 느끼고 남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키워 가게 된다. 따라서 아이가 사춘기에 이르면 엄마

흔아 아들 통제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아이는 힘든 사춘기를 보내게 된다. 또 여자 아이들의 경우 자신이 갖게 되는 남성상을 아버지로부터 얻게 되며, 이성상을 키워 가게 된다.

조네타 바라스(Jonnetta Barras)는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사춘기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딸들은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상처는 결국 성적 혼란으로 나타나기 쉽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동성시와 이성상 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 모두에게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상으로 투사,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는 서울 번두리에 세워진 한 교회 청년회를 지도한 적이 있었다. 새로 나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

님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대!”라고 말하자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못 믿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려는 것이었다. 필자는 그 청년을 따로 불러 상담한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듣다가 발견한 사실인데 그 청년의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행하는 분이였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를 안고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가출하여 공장에 취직한 상태였다.

그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생각이 떠올라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비로움을 맛본 일이 없는 자녀, 아

버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자녀, 아버지의 그 넓고 강한 팔을 느껴 보지 못한 자녀, 오직 폭군 아버지만을 보고 자란 자녀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유사한 일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에게도 있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면 엄부 슬하에서 자랐기에 좋지 않은 아버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이처럼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가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면은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들의 46 퍼센트 정도가 아들이 자신을 닮기

를 소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아들은 33 퍼센트에 불과했고, 아들이 자신을 닮지 않기를 희망하는 아버지는 28 퍼센트나 되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모델임을 틀림없다. 아버지를 결코 닮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아이들도 결국은 아버지를 닮아가며 성장하게 된다. 아버지를 싫어했던 그 아들도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아버지들은 지금 자녀들로부터 훌륭한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딸들이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아빠 같은 남편은 만난다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할까?

포르테
세종 송보감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식약청 공인)
“참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KFDA공인 건강기능식품
■ 1박스(1개월분) 195불 ■ 3박스(3개월분) 360불
Biotech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오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진짜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Tel.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 (미주복음방송국4층)

WIN HYUNDAI at El Monte
VERACRUZ Limited 2012 MSRP...\$32,625. Lease \$259 per month plus tax.
SANTA FE SE AWD 2012 MSRP...\$32,565. Lease \$259 per month plus tax.
SONATA GLS 2013 MSRP...\$22,995. Lease \$89 per month plus tax.
ELANTRA GLS 2013 MSRP...\$19,015. Lease \$79 per month plus tax.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3월 10일 까지입니다.
HYUNDAI Assurance Tel. 888.409.3002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힐링여행' 가볼만한 곳, 세도나

바쁜 일상에 지친 심신 달래주는 여행

"여행 안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여행은 삶이 되고 삶은 곧 여행이 된다." 평소 자신을 잃고 있던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나를 돌아 볼 수 있다면 더할 수 없이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값진 경험 얻게 될 것이다. 나를 찾는 여행을 꿈꾼다면 '힐링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힐링여행'은 기분을 전환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여행과 더불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스트레스 관리법까지 배울 수 있는 여러 여행상품도 개발되어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자. '여행과 명상을 통한 휴식'을 테마로 하는 이 상품은 이동 중에 건강상식 및 건강관리법을 배우고, 목적지에서의 대자연의 기를 받는 기(氣)제조, 산책 및 치유, 그리고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바쁜 일상으로 지쳤던 심신을 달랠 수 있다.

■ 세도나

지구상 가장 강력한 전기파장인 볼텍

스(VORTEX)가 넘치는 신비의 땅 세도나는 '명상여행'을 즐기기에 최적의 명소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땅을 신성하게 여기고 병이 들면 찾아와 병을 고쳤다는 말이 전해질만큼 기(氣)가 충만한 곳으로 은퇴한 노인들이 주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평균연령이 50세에 달하는 것도 이에서 연유한다.

애리조나의 작은 도시인 세도나의 주민은 1만 5천명에 불과하지만 휴식을 얻고자 이곳을 찾는 여행객은 연간 약 500만 명에 이른다.

또한 이 땅의 신성한 치유력을 믿는 명상가, 영적 감동을 얻고자 하는 예술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미국적이고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있다.

세도나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안내책자의 첫머리에는 "세도나를 처음 찾는 이의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잠을 자는 중일

것이다"란 문구가 나온다. 세도나에 이르러는 구불구불한 길가에 울곧게 뻗어 있는 나무들과 계곡이 이루는 절경, 푸른 하늘과 붉은 바위들이 어우러진 절묘한 풍경은 입을 벌여지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를 꺼내 들게 만든다.

세도나에 도착하면 "I-MAX 영화"부터 보는 것이 좋다. 여행이란 아는 만큼 보이고 알면 여유가 생기게 마련이다. 편안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 영화로 도시를 익혀보자. 도시를 둘러보면 낯선 맥도날드를 만날 수 있는데, 'm'사인이 노란색이 아닌 진녹색이다.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건물의 간판은 붉은색과 진녹색만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리조나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로 '쌈'이란 뜻이다. 사막과 바위산이 대부분인 애리조나의 '쌈'은 바로 세도나를 가르키는 말이다. 이곳에는 물이 흐르고 물은 숲을 키웠다. 나바호족, 아파치족, 아파치족 등의 원주민들이 이곳 주변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살았지만 백인들에 의해 그랜드캐년 등지로 내몰렸다.

원주민이 떠난 신성한 땅에 백인들은 세도나란 이름을 붙였다. 세도나는 1901년 세도나 우체국 설립승인을 받은 쉬네블리의 아내 이름이다. 처음엔 쉬네블리라 이름 붙였으나 부르기 힘들다는 이유로 1년 만에 아내의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재미난 일화가 있다.

그랜드캐년 사우스리프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으며 시와 관광청 홈페이지(<http://city.sedona.net>, <http://www.visitsedona.com>)에서 자세한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벨락(Bell Rock)

명상가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깊은 명상상태에서 느끼는 뇌파인 세타파(θ wave)와 동일한 전기파장이 강력하게 분출되는 곳을 볼텍스(Vortex)라고 하는데 현재 지구상에는 21개의 볼텍스가 있다고 한다. 이 중 5개가 세도나 국립공원 내에 있다. 그 중 가장 강한 볼텍스가 벨락이다. 정면에서 보면 거대한 벨(Bell)처럼 보인다. 앞쪽은 가팔라서 사람이 접근할 수는 없으나 뒤로 돌아가면 산책 코스가 마련되어 있기에 비교적 쉽게 정상 가까이 오를 수 있다. 굳이 암벽을 타고 정상까지 오르지 않아도 일반인들도 지구의 기운을 느낄 수 있으니 암벽을 타는 모험은 하지 않아도 된다.

▶ 커디럴 락(Cathedral Rock)

대성당 바위라 불리는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워 이 지역을 담은 사진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이며 수많은 서부영화의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하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성당 바위는 언뜻 보면 고딕양식의 건축물을 떠올리게 하는 거대한 바위산이다. 세도나 일대를 한눈에 바라 보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 에어포트 메사(Airport Mesa)

대성당 바위가 세도나 일대를 조망하기 좋다면 이곳은 세도나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명소다. 나즈막한 언덕에 위치한 에어포트 메사에 오르면 세도나 도시 전체는 물론 병풍처럼 펼쳐진 여러 붉은 바위들을 볼 수 있다.

유명 만화 주인공인 스누피가 누워 있는 모습과 같다하여 이름 붙여진 '스누피 바위', 커피포트처럼 생긴 '커피 팻 바위', '굴뚝바위' 등 세도나의 유명한 바위들을 찾아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된다. 에어포트 메사는 일출과 일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저물어가는 해와 붉은 산, 불게 물든 구름이 연출하는 숨막히는 일몰은 한번 보면 평생 두고 잊기 힘든 풍경이다.

▶ 보인톤 캐년(Boynton Canyon)

낮에는 금빛, 저녁엔 붉은 빛으로 물드는 장엄한 바위로 유명한 보인톤 계곡은 제법 긴 산책 코스를 가지고 있다. 세도나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꼽히는 이곳의 입구에는 '카치나의 여인'이라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 앞에서 명상을 하면 지구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며, 아메리칸 원주민은 이 곳을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입구를 지나면 두 갈래 길로 나뉘는데 왼쪽으로 가면 숲을 지나 보인톤으로 이르는 약 3시간 정도의 산책 코스로 이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짧지만 아름다운 붉은 바위를 감상 할 수 있는 30여분이 소요되는 산책코스로 이어진다.

▶ 마고 가든(Mago Garden)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세도나의 5번째 볼텍스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12개의 작은 볼텍스로 이뤄져 있어 지나가지만 해도 지구의 어머니 '마고가이아'(Mago Gaia,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이다. 세도나에서 가장 온화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자료제공: **US이주투어**>





Korea Be Inspired
한국관광공사

30주년 기념, 아주투어가 준비한 신년맞이 봄맞이 모국 힐링투어!
모국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특별한 내고향 향토음식, 구수하고 해박한 지식의 가이드 3박자를 모두 갖춘 구성입니다. 어릴적 그 모습! 그 맛!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까지 치유하는 내 고향으로의 멋지고 맛있는 여행길로 초대합니다. 아주투어의 모국 힐링투어로 이민생활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문경제재/단양팔경
옛길여행 4일 \$399
맛지랭! 맛지랭! 출발 ▶ 매주 화
서해투어 조인 가능

옛 대통령 별장에서 국화향에 흠뻑
청남대 관광
문경드라마 세트장/옛길 박물관
문경제재 옛길 산책
문의문화재단지, 선명국 가옥, 정이뚝송 소나무
모담삼봉, 원주 한지테마파크, 이천 도자기마을
수원화성, 화성행궁

제주 롯데호텔 특선 \$229+항공료
출발 ▶ 3/11까지 여행자에 한함

진해벚꽃 축제여행 3일 \$199
30주년 특가! \$249-7
단 1회 출발 ▶ 4/9
동해투어 조인 가능

38만여 그루의 빛나무
진해시내 벚꽃 관광
주원로타리, 여좌천
해봉기지사령부

지리산/섬진강 봄꽃여행 3일 \$199
30주년 특가! \$249-7
단 2회 출발 ▶ 3/26, 4/2
동해투어 조인 가능

활짝 핀 산수유 꽃으로
분홍 노란색으로 물들여 장관
산수유 마을 산책
청매실농원의 장독대,
응선농과와 이어진
매화꽃향연 감상

관람의길 30년! 아주관광이 새로운 30년을 아주투어로 시작합니다!

US이주투어 213-388-4000
833 S. Western Ave #35-A, L.A., CA 90005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Excel Legal Center (엑셀법률센터)

-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 혼인, 이혼, E2 투자
- ✓ 퇴거, 소액재판, 파산
-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 노인시니어아파트 신청대행

☎ 213-365-6622 (67+ 사무스베일러앤코대학원 학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 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90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장,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7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 세계 최초 승인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러시아 GOST 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반영구적 집안, 밖 100% 사용
- 녹과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수질안전, 이온 활성화, 경제성 확보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us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 알로에 베라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 제작관리 및 수정
쇼핑몰, 게시판 관리
다양한 디자인 배너제작

start from \$499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 교통사고
- * 즉시 효과보는 침
-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란드 신안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스마트 월드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 전문점!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from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 8백만 음이온-양극이온 발생

졸음 운전 때문에 교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주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박스데반 선교사의 기도 편지

<8면에서 기사 받음>

그것이 시편 22편 27~28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고 모든 민족이 그분을 예배한다는 이 말씀 앞에 저의 삶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아이디어는 272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로 살면서 한국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 고자 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내 나이 26살에 터키로 단기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있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터키는 옛날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 땅에는 화려했던 기독교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폐허가 되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고 이슬람이 뿌리를 내린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특히 이 땅을 고쳐 달라는 부분에 하나님은 마치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 에스겔 22장 30~31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진노를 막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내 영혼에 퍼지면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배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DTS간사로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를 배우고 또한 선교사로 살면서 저는 좌절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에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한국 땅에서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었지만 풍토병으로 죽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예배가 있었기에 그 예배 때문에 한국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다른 예배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2004년 김선일씨가 살해 되는 뉴스가 나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영국에서 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라는 질문을 내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동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원하신다면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동 선교사로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들을 사용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다 조금 컴퓨터를 잘한다는 이유로 컴퓨터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과 함께 수리나 컴퓨터 교실로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서는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왔고 나름 주어진 환경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게 한가지 도전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은 매우 경건한 종교입니다.

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무슬림 가정에서 들리는 매맞는 아내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는 일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들 가정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법에 따라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는 무슬림의 삶에는 아니 어쩌면 가난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난민의 삶에는 기쁨도 희망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 가정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슬람의 법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해”라는 말을 세 번 이상을 하면 자동 이혼이 됩니다. 그렇게 버려진 여성들이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에 지친 남자들은 마약에 의해서 살고 있었고 그러기에 범죄로 인하여 감옥에 가있는 가장, 그로 인해 버려진 여인들과 아이들. 실제로 난민들은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하루 1불 미만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집에는 변변한 살림이 없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담요 하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은퇴할 때까지 중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선교사로 있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게 BAM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게 되었고 좀더 배우고 비전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패밀리카페였습니다. 커피나 다른 음료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동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거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갈 곳이 없어 방치 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 내놓고 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당신은 사랑 받기에 가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카페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장소 그러면서 될 수 있고 아이들은 사랑 받는 시간이 되면서 여자로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곳, 또한 문화적인 공간을

에 패밀리카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라는 가치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수 많은 사람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비즈니스를 통해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올해 다시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은 그들의 문화를 비즈니스 차원으로 다시 한번 배우면서 언어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카페를 구상하는 것과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공유하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현지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배우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그전에 도하에서 패밀리카페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점으로 중동 주요 도시마다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4명의 아빠입니다. 선교를 공부하면서 2.6% 출산율이 되어야 한 문화를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명을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쌍둥이를 주셔서 4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아빠를 둔 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쁨이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으로 비취지고 싶지 않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진 이 비전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드러 도전을 할 수 있는 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은 꿈을 무시하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 온다고 하였습니다. 중동 지금 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선교하기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한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저희 가정과 함께 이 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글=박스데반 선교사

선교사에게 있어 가장 큰 도전은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이슬람권에 전하는 게 내 소명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그 때까지

그들이 알라를 예배하는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시간을 드려서 꾸란을 읽고 암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길을 걷고 있으면 열정 있는 사람들이 라면 다가와 무슬림이 될 것을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중동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들의 열정이 너무나 커서 개종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라도 죽이려는 이야기도 들었고 선교사들이 자신의 아이를 변하게 하겠다고 선교사를 죽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던 늘 종교 경찰이 쫓아 다녔고 모함으로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체포되는 일도 보았습니다.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아프리카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이 납치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를 포함하여 많은 한국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정보국에 불러가서 취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이 국적을 떠나서 추방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 단체에서도 몇 명이 나가야만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앞으로 어떻

지만 살고 사는 그들의 모습은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무슬림이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아니 알라가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으로 첫 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중동에서 낳고 싶었지만 당시 환율이 너무 올라서 받는 후원금으로 출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출산 이후에도 저희 단체에서 아내도 DTS를 했으면 해서 훈련을 받았고 이후 다시 중동으로 들어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동에서 단기로 있을 것이

만들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현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동안 저는 이 일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꿈을 꾸고 그 꿈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재정도 교회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만의 꿈이라면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면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중동 선교 어렵고 힘들고 열매 없지만 그러나 순종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에 동참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중동 주요 도시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중앙일보/인터넷 웹사이트(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4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앗! 집전화요금 미쳤다!

미국 로컬·장거리 무제한

\$9.99

비싼 집전화는 가라!

정답은 아이토크비비 **첫 2개월 무료**

비싼 집전화에 묻습니다. 전화요금 해결할 자신 있습니까?

아이토크비비는 자신 있습니다.

지금 사용중인 집전화 요금과 비교해 보세요!

	iTalkBB	AT&T	Verizon	Time Warner
플랜	미국 무제한 플랜	Standard Home Phone Service	Freedom value	Unlimited Nationwide
월요금	\$9.99	\$23	\$57.99	\$19.99
미국 로컬, 장거리	무제한	장거리 추가요금	무제한	무제한
한국 포함 27개국 통화	월 60분 무료*	×	×	×
한국 집전화 통화	2.6¢/분	7¢/분	8¢/분	10¢/분
한국 휴대전화통화	5¢/분	11¢/분	13¢/분	15¢/분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www.Korea.iTalkBB.com**

LA 직영점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304호) **213.559.7557** | **1.800.872.2902**

아·이·토·크·비·비
iTalkBB [30% 환율 보장!] **품질의 자신!**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지금 가입하고 친구추천 하면 **1개월 무료**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 PST)

